

# 광주 고교폭력 이렇게 잔인할 수가 교사·학교는 뭘 했나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사프 연필·칼 등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구용품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5일 광주 A고등학교 K(15)군 등 10명이 같은 학교 P(15)군 등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반장'인 P군 등은 지난 3월 말부터 같은 반 친구 K군에게 문구용 칼로 상처를 입히는 등 상

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샌드백'이나 다름없었다"며 "처음에는 뺨을 때리다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종 팔뚝을 문구용 칼로 베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자 K군은 이로 인해 팔뚝이 약 7cm가량이 찢어져 병원에서 4바늘을 꿰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G(15)군은 라이더 블로 달린 사프 연필 끝으로 목덜미를 찔려 화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가

해자 P군 등을 소환,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광주 B고 2년 P(17)군을 폭력 등의 혐의로 불집자 조사 중이다. P군은 지난 4월 초 2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17)에게 3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P군은 화장실과 교실 등에서 대걸레 자루와 주먹으로 상

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를 건디다 못한 피해자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해마다 줄고 있지만, 그 수법은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고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반성 않는 무면허운전 형량 높인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지원장 선재성 부장판사)은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가 법원 선고 전까지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계속할 경우 형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5일 순천지원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따르면 순천지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등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운전을 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무면허 운전 지속 여부를 형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순천지원 교통사고 전담판사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판결 전 조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 순천지소 판결 전 조사담당관은 무면허 운전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여부를 파악해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는 이를 형량에 반영한다.

법원이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실태에 대한 판결 전 조사 의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을 경시하고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재성 순천지원장은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적발된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면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나원침 (7254) 김종두



## 벌금형 무고사범 항소심서 징역형

### 광주지법 '죄질 불량'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허위 고소나 허위 증언의 경우 판사가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는 '공판중심주의'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형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강)는 5일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대해 양심을 품고 거짓으로 강간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여·2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단 작동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원)도 교통사고 당시 신호등의 지시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택시운전자 김모(5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거짓진술을 한 점이 명백한데도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을 반복하고 자신의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처럼 검사의 양형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여,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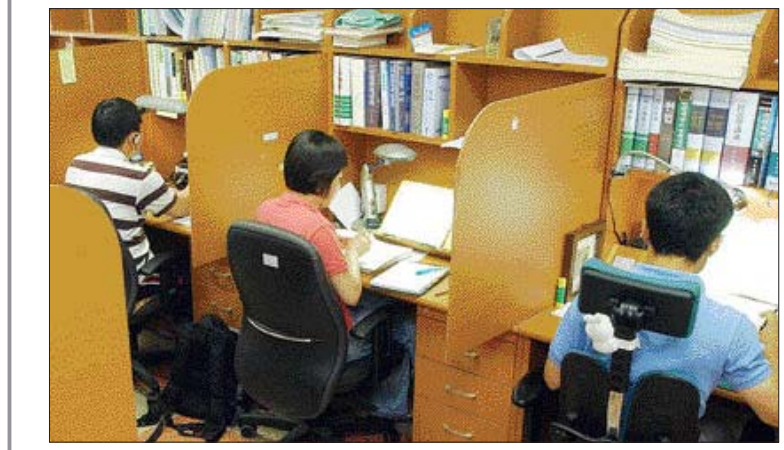
KCC방호, 시스템방호 생산·시공

▶ 02-2652-1414-1422 ▶ 02-2652-0977-9900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대여, 대우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프

▶ 02-2652-1414-1422 ▶ 02-2652-0977-9900



5일 오전 조선대 '황금추관'에서 20여명의 고시생들이 더위를 잊고 사법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일 오전 전남대 '프리임홀'에서 10여명의 고시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司試 빨리 합격해야” 불안... 초조...

### ■ '로스쿨법 통과' 술렁이는 고시생들

### “강박관념에 책 손에 안잡혀요”

지난달 '49회 사법시험' 제 2차 시험을 마친 바일(36·조선대 95년도 졸업)씨,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 중인 박씨는 시험 직후 광주로 내려와 집에서 머물다 지난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갔다. 만약에 대비해 내년 2차 시험을 서둘러 준비하기 위해서다. 예년 같으면 집에서 달가랴 쉼 쉬며 영양보충을 하며 다음 시험을 대비했지만, 사법 시험 시행 중 가급적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광주·전남 대학가 고시촌도 술렁이고 있다. 로스쿨 법안 통과로 법조인 선발과정이 크게 바뀌지만 로

스쿨 입학전형을 불과 1년여 남겨두었음에도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5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고시도서관 '황금추관'에서 만난 20명의 사법시험 준비생(졸업생 18·재학생 2명)들은 "사법시험 없어지기 전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시생은 "후배들은 공부하다 안 되면 로스쿨 진학도 생각해 볼만 하지만 10여 년 넘게 고시만 바라보고 시간을 보낸 30대 중반 고시생들은 앞길에 막막하다"고 털어놓았다.

김금주(여·22·법학과 4년)양은 "로스쿨 입학 과정이 까다롭고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사법시험이 없어지기 전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고시도서관 '프리임홀'에서 공부에 몰두 중인 150여명의 수

험생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문모(28·2005년 졸업)씨는 "몇 년 사이에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한 해 학자금이 3천만원이 넘는다는 로스쿨에 진학할 자신도 없어 공부에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보라(여·20·법학과 2년)양은 "제도도 정착되는 동안 군대에 있겠다"며 휴학을 준비하는 남학생이 늘었고, 행정고시·외무고시·취직으로 목표를 바꾸는 학생도 있다"며 "로스쿨 입학을 위해 학부 학점 4.0이 넘어야 한다는 소문에 사법 시험에 도전하면서도 학점관리를 따로 해야 할 형편이다"고 하소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도지의 중점특박을 우리는 3,813 회에 걸쳐

8888 8888 8888 8888

수원신도시 1000리

문의전화 082-367-9000

## 건설사주 납치·감금 폭력배 2명 구속 청부한 2명 영장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광주지역에서 광주 H 건설회사 사주 납치·감금 사건의 공범인 폭력조직 '신사방파' 조직원 신모(23)·이모(23)씨 등 2명을 납치·인질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납치를 청부한 경기도 안양 주택건설업체 D사 이모(33) 전무 등 2명에 대해 납치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10일 낮 12시30분께 담양군 창평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잠시 차를 멈춘 H건설 이모(45) 사장과 직원 강모(40)씨를 납치한 뒤 12시간 폭행 및 협박해 3억원 상당의 현금 지급각서를 작성케 한 혐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허위 자수' 잘못된 조폭의 의미

○집행유예 기간에 주먹을 휘두른 동료 조직원 대신 자수한 폭력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때문에 경찰서형.

○광주 동부경찰은 5일 나이트 클럽에서 정모(26·장성군 장성읍)씨를 때린 속주 광주 '무등산파' 조직원 주모(19)씨 대신 허위 자수한 손모(19·서구 화정동)씨를 범인도파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경찰 소환을 앞둔 주씨가 집행유예(폭력 2년) 만료일이 한 달 가량 남아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자수했다는 것.

○경찰은 손씨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무등산파' 조직원들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서 주씨의 사진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확인시킨 후 손씨의 허위 진술을 밝혀냈다고.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써 한번 앞서주세요.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bepolar.co.kr

1588-8499 080-222-0100